

전일동향

전일대비 7.40원 상승한 1,372.00원에 마감

12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7.40원 상승한 1,372.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90원 상승한 1,365.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장 초반 수급을 소화하며 1,360원 초 중반에서 등락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환율은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되어 상승폭을 확대했고, 추격매수세 등이 가세하며 1,372.0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1.7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65.50	1372.80	1363.40	1372.00	1367.70
엔화	930.67	933.01	924.91	931.98	-	
유로화	1489.37	1500.28	1488.39	1499.7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57	-6.92	-14.47
결제환율(수입)	-1.05	-6.07	-12.78	-23.07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통화 약세에...1,37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3.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72.00) 대비 1.50원 하락한 1,367.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위험통화 약세 등에 상승 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밤 달러화는 뉴욕 연의 소비자기대조사 결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대비 0.6%p 하락한 2.3%로 집계되자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한 위험회피에 하락세는 제한되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과 잠수함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가중되었다. 이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국제유가는 4%이상 상승했다. 이와 같은 위험회피 심리는 위험통화인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업체 결제 등을 포함한 역내 실수요 저가매수 등에 금일 환율은 상방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내고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65.33 ~ 1375.33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780.9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0원 ↓
	■ 美 다우지수 : 39357.01, -140.53p(-0.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7.3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06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